

■ “실업급여 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” (박 혁 책임연구원)

- 실업급여의 1996년 하반기 최초 실적치는 7,199명 및 10,381백만원에 그쳤지만, 2004년에는 제도시행 이후 최고치인 465,776명, 1조4,483억원으로 나타나 제도시행 10여 년 간 외형적 틀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판단됨.
-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직 시 생계보전 정도에 관한 분석, 실업급여수급자와 비자발적 상실자 간 특성 분석 등을 위하여 다양한 계량모형분석 등의 지속적 평가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.
- 1인 이상 전사업장으로 고용보험의 제도적 포괄성이 확장되었음에도, 여전히 크게 존재하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의 고용보험제도권 내로의 편입 및 사회적 보장을 위해 정책적 개선 및 노력이 필요
-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선 고용안정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,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기존 실업급여사업 내 급여들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

문의처 : 한국노동연구원 박 혁 책임연구원

Tel : 782-0141(ext.314) / E-mail : histephen@kli.re.kr

* 한국노동연구원 보도자료 및 원문은 인터넷(<http://www.kli.re.kr>)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.

실업급여 제도 변화 및 실적 분석

담 당 자	박 혁 책임연구원
전 화	02) 782-0141 (314)

- 실업급여제도는 기본급여인 ‘구직급여’와 ‘취업촉진수당’으로 구성되어 2004년 현재까지 제도 내 세부사업들의 추가나 폐지 등의 큰 변화 없이 운영되어 왔는데, 수급자 대상 범위, 기여수준 및 수급요건, 수급금액 수준·기간 등의 세부 요건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되어 왔음.
 - 적용대상 확대: 1998년 10월을 기점으로 2005년 현재까지 1인이상 전사업 근로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음.
 - 재원: 사업주와 근로자의 양자부담 징수체계로 운영, 현재는 0.9%(사업주: 0.45%+근로자 0.45%)
 - 기준기간 및 피보험기간, 소정급여일수의 변화: 기준기간 18개월/피보험기간 180일; 소정급여일수 90~240일 구간
 - 지급액: 급여기초임금일액(평균임금)의 50%;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90%, 상한액은 3만5천원

- 지난 10여 년 간의 실업급여 실적은 다음과 같음(표 1 참조).
 - 실제 실적치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6년 하반기에는 7,199명에게 10,381백만원이 지급된 것에 그치지만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급증 하였던 1998년에는 1,000%p에 가까운 증가세를 나타내며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섰고, 지급액 역시 9천억원대에 이룸.
 - 이러한 급증세는 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1999년부터 신규구직급여수급자가 전년대비 7만여명이 감소한 307,568명, 2000년 227,789명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지만, 2001년 다시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다시금 314,778명으로 급증

- 이후 2002~2004년까지 경기의 회복, 악화가 반복되면서 신규구직급여수급자수가 함께 변화하고 있는데, 2004년에는 제도 시행 이후 최고치인 465,776명으로 집계되었고, 지급액은 2003년에 이어 1조원대를 넘어서 1조 4,483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남.

〈표 1〉 실업급여 신규수급자 및 수급자 연인원 추이(1996년 하반기~2004년)

(단위: 명, %, 백만원)

	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수		실업급여 수급자 수		총 지급액		피보험자수	상실자 수	실업률
1996년(하반기)	7,199	-	15,473	-	10,381	-	4,321,573	666,909	2.0
1997년	39,911	(454.4)	126,277	(716.1)	77,864	(650.0)	4,280,430	1,392,542	2.6
1998년	373,899	(836.8)	1,379,940	(992.8)	788,151	(912.2)	5,267,658	1,983,688	7.0
1999년	307,568	(△17.7)	1,741,437	(26.2)	936,186	(18.8)	6,054,479	2,499,662	6.3
2000년	227,789	(△25.9)	918,460	(△47.3)	470,794	(△49.7)	6,747,263	2,981,558	4.1
2001년	314,778	(38.2)	1,403,605	(52.8)	845,112	(79.5)	6,908,888	3,234,745	3.8
2002년	276,023	(△12.3)	1,306,213	(△ 6.9)	839,317	(△ 0.7)	7,171,277	3,404,669	3.1
2003년	338,334	(22.6)	1,531,871	(17.3)	1,030,304	(22.8)	7,203,347	3,394,502	3.4
2004년	465,776	(37.7)	2,180,622	(42.4)	1,448,305	(40.6)	7,576,856	3,364,005	3.5

○ 실업급여의 향후 개선과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.

- 실업급여제도는 지난 10년간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,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보장정책으로서의 기능을 나름대로 수행한 것으로 평가됨.
- 다만, 실업급여수급자가 전체 근로자의 50% 이상을 대변하고 있는 시점에서 ‘실업급여수급률’이 실업률과 함께 하나의 예측 가능한 노동시장 지표로서 활용가능하려면, 실업급여수급자와 비자발적 상실자의 특성 및 이에 기반한 다양한 계량분석 등 지속적 평가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함.

〈표 2〉 실업자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및 실업급여 신청자 추이(1996~2004년)

(단위: 명, 천명 %)

	실업자수 (A: 천명)	증감 률	상실자수				실업급여 신청자수(D)	증감률	D/A	D/B	D/C	
			전체(B)	증감률	비자발적(C)	증감률						
1996년(하반기)	424	-	666,909	-	54,205	(8.1)	-	10,133	-	2.4	1.5	18.7
1997년	568	30.5	1,392,542	108.8	167,495	(8.1)	209.0	51,017	403.5	9.0	3.7	30.5
1998년	1,490	162.4	1,983,688	42.5	665,715	(12.0)	297.5	438,465	759.4	29.4	22.1	65.9
1999년	1,374	△ 7.8	2,499,662	26.0	723,842	(33.6)	8.7	327,954	△25.2	23.9	13.1	45.3
2000년	913	△33.6	2,981,558	19.3	746,420	(29.0)	3.1	260,574	△20.5	28.5	8.7	34.9
2001년	845	△ 7.5	3,234,745	8.5	906,406	(25.0)	21.4	349,148	34.0	41.3	10.8	38.5
2002년	708	△16.2	3,404,669	5.3	840,603	(28.0)	△7.3	299,215	△14.3	42.3	8.8	35.6
2003년	777	9.7	3,394,502	△0.3	1,007,909	(24.7)	19.9	379,600	26.9	48.9	11.2	37.7
2004년	813	4.7	3,364,005	△0.9	1,150,850	(29.7)	14.2	471,542	24.2	58.0	14.0	41.0

주: ‘비자발적(C)’ 셀에서의 괄호 내 비중 수치는 전체 상실자에서 비자발적 상실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.
자료: 노동부 자료를 필자가 계산하여 재구성함.

-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및 전체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중이 낮아,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각지대 근로자들을 고용보험제도 내로 편입하고 사회적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및 노력이 필요(표 2 참조)
-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일선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의 인력 보강 및 질적 수준 제고, 기존 실업급여사업 내 급여들과 연동될 수 있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을 포함하는 제반 인프라 개선 노력이 요구됨.